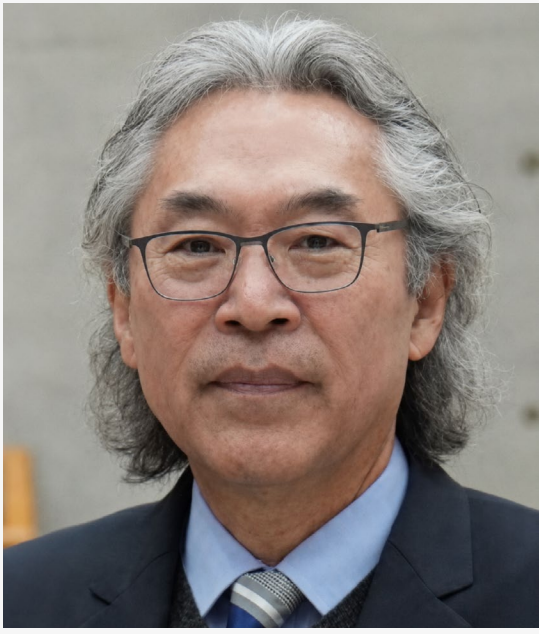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9월 호)



2026년 새 학년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CST,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사진: 이경식 국제협력 수석부총장〉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CST 공동체와 한국의 동문, 학생, 후원자, 그리고 여러 협력기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와 대학원이 학생 모집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은 감사하게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13개 신학교 가운데서도 CST의 학생 모집 증가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2022년 가을부터 2025년 가을까지 CST의 신입생 등록은 52% 증가했고, 전체 재학생 수도 27% 증가했습니다. 학생 유지율 역시 2020년 이후 계속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4년 가을에는 96%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6년 새 학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CST 입학에 관심을 보인 429명 가운데 238명이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193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51명이 입학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129명의 새로운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새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D.Min. 23명, MTS 8명, M.Div. 26명, M.A. 7명, Ph.D. 24명, 영성박사 10명, 전문상담박사 3명이 새롭게 CST 공동체에 합류했으며, 다른 학교에서 CST로 전학 온 학생도 34명에 이릅니다.

왜 학생들은 CST를 선택하는가?

저는 이러한 성장이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시대가 CST와 같은 신학교육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의 가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CST를 찾아옵니다.

신앙과 종교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양극화된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와 종교 공동체는 어떻게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CST는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과 정직하게 씨름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ST의 성장이 오늘의 시대적 논쟁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계가 연민과 정의,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속의 공동체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CST 공동체

이러한 CST의 사명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CST는 온라인 교육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지역과 문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신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적 사역의 일환으로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영성통합심리치료'** 집중수업을 가르칩니다. 학생들과 함께 심리치료와 영성, 상담자의 영성, 내담자의 종교적·영적 자원과 어려움,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영성을 어떻게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방문 기간에는 감리교신학대학원, 협성신학대학원, 목원신학대학원, 장로교신학대학원, 연세연합신학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며, CST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장학제도를 소개하는 입학설명회도 갖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신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CST가 제공하는 신학교육의 비전과 가능성을 소개하고, 한국의 신학교들과 CST가 앞으로 어떤 교육적·학문적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문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이번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ST 동문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산, 서울, 성남, 안산 등 여러 지역의 교회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CST에서 공부한 동문들이 담임목사 또는 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와 영적 돌봄의 현장에서 어떻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예배와 설교,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CST 한국 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
2026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불꽃교회(공성훈 목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11

이번 방문 중에는 한국의 CST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 동문회도 마련됩니다. 2026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불꽃교회 (공성훈 목사)에서 열리는 이 모임이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격려하며 CST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깊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의 교육은 졸업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교회와 병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때 CST의 교육은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문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CST 교육의 열매를 확인하고 우리의 교육을 다시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에서 만나는 CST

이번 아시아 방문 중에는 라오스도 방문합니다. 라오스에는 현재 두 명의 CST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현지에서 강연을 하며,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CST의 교실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고, 다시 라오스의 선교 현장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신학교육의 지리적 경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CST의 국제화는 단순히 외국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교회와 사역의 현장이 하나의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라오스의 서로 다른 현장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같은 CST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교육의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년, 더 넓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학생 지원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학년을 시작하며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의 등록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CST에서 배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드는 학생들, 자신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목회자와 상담자들, 그리고 졸업 후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동문들에게서 그 희망을 봅니다.

연민, 정의, 소속감

이 가치들은 지금의 시대에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CST의 교육과 사명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CST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장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책임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동문들이 섬기는 교회와 병원에서, 그리고 라오스의 선교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신학적·영적 지도자는 누구이며,
CST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새로운 학년, 새로운 만남, 그리고 더 넓어지는 CST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H. Samuel Lee

CST, 2026년 가을학기 인텐시브 워크 진행

CST는 2026년 가을학기 인텐시브 워크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약 20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인텐시브 워크에서는 두 개의 집중 강좌가 열렸으며, 수업과 토론, 영화 감상, 다양한 현장학습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인텐시브 워크에서는 「City of Angels: Religion, History, and Art in Los Angeles」 강좌가 진행되었다. Benjamin Groth 교수, Yohana A. Junker 교수, Jessica Radicic 교수, Yuki Schwartz 교수가 함께 이끈 이번 수업은 로스앤젤레스를 하나의 교실이자 배움의 공간으로 바라보며, LA의 종교와 역사, 예술을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탐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인텐시브 수업 현장〉

수업에서는 LA의 종교와 역사, 예술을 다양한 자료와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Finding God in the City of Angels」 영화를 감상하고, 역사학자이자 영화 제작자이자 CST 동문인 Simon Joseph교수와 함께 영화와 LA의 종교적·역사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Azusa Street Project와 예술과 이미지의 의미를 다루며, 도시와 종교,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했다.

수업의 중요한 부분은 LA 곳곳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학습이었다. 학생들은 Wilshire Boulevard Temple을 방문해 회중의 역사학자로부터 교회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East Los Angeles와 Boyle Heights 지역을 걸으며 LA의 역사와 다양한 공동체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Hsi Lai Temple을 방문해 불교 전통과 종교적 공간을 경험하고, 채식 점심과 가이드 투어를 통해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Huntington Library를 방문해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강좌를 마무리했다. 이번 「City of Angels」 강좌는 LA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학생들은 강의실을 넘어 종교 공간과 역사적 장소, 예술과 다양한 공동체를 직접 만나며 배운 내용을 실제 공간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과 현장학습을 통해 LA의 종교와 역사, 예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진: 인텐시브에 참여한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고 있다.〉

CST 졸업생의 여름: OPT와 새로운 출발



〈사진: 송영한 MDiv. '2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CST M.Div. 과정을 졸업한 송영한 전도사입니다. 저는 5월에 CST를 졸업했지만, 다음 박사과정으로 바로 진학하지 않고 여름을 LA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원하는 졸업생 대부분은 다음 학교로 바로 가지만, 저는 OPT 과정을 신청하여 LA에서 1년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F-1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졸업하기 3달 전 OPT 과정을 미리 알아보고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LA VALLEY에 있는 밸리주하나교회와 CST 국제협력처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OPT 신청이 단지 일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밸리주하나교회에서 KMC 안수 과정을 더 진행하면서, 박사과정 학교를 여러 곳 지원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OPT로 일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와 학교로부터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진: 밸리주하나교회에서〉



〈사진: 결혼식〉

또한 개인적으로 기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바쁘게 살아오면서 결혼에 대해 쉽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인연이 생겨 한국에 있던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OPT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려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정의 삶을 LA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CST에 재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에 졸업한 후에도 좋은 기회를 받고 기쁜 일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과거 재학생으로서의 여름 방학이 공부한 후에 주어진 다양한 경험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 경험한 졸업생의 여름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안수 과정을 진행하며, 박사과정 학교에 지원하고, 새 비자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CST를 통해 준비된 기간들이 앞으로의 여정에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진: 박태진 신입생〉

CST에 입학하며 신학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사역했던 과거의 전도사와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마음으로만 품었던 소명에 이름을 붙인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분들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는 저에게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에 대한 고민은 20살, 첫 신학교에 입학한 ‘대학생 박태진’이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했던 제법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40명의 입학생, 또 다른 신학교, 십자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모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인가?’ 이 질문은 웨슬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을 통해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민족은 이 시대의 우리보다 더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 그 택함은 광야와 가나안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본인의 선택은 별개입니다. 택함이 나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면, 저 역시 ‘제가 특별히 택함 받았는가’를 확인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걸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지가 정해지면 차로도, 비행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지 교통수단은 뒷순위인 것처럼, 저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목회를, 미국에 오는 것을, 지금은 CST를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솔직해집니다. ‘No,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왜 CST에 왔는가? 그 질문 앞에서는 저는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는 방향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선택했다가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로 평생 사역하는 것과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 결국 같은 사역인데 굳이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다시 저의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도사와 목회자는 같은 길 위에 있지만, 그 위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공동체를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방향은 같아도, 감당하고 싶은 자리가 분명했기에 CST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CST는 나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CST에서 만나게 될 한인 학우 여러분, 이미 이 길을 앞서 걷고 계신 선배 목사님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신입생 박태진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소명의 여정을 응원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CST 안에서, 졸업 후 현장의 길에서, 좋은 동역자로서, 이 글을 읽는 분의 선한 이웃으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진: 양다니엘 신입생〉

안녕하세요, 2026년 가을학기에 CST에서 M.Div. 과정을 시작하게 된 Daniel Yang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기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조금씩 눈이 열렸던 여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 교회를 통해 배워 온 신앙이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 왔습니다.

2019년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한 이후 여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사역의 경험을 쌓았고, 이후 Youth and Family Ministry를 공부했고, Life Pacific University에서는 Ministry를 전공하며 성경과 사역 전반에 대한 배움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하고 책임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밸리연합감리교회서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맡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매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자신의 믿음을 세워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사이자 기쁨과 축복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때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신앙과 학교생활, 관계, 진로와 같이 자신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준비할수록,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쉽게 답하기보다 성경과 신학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 계속 배우고, 질문하고, 제 신앙과 목회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가 CST에서 M.Div. 과정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학업을 시작하며 Korean Endowment Scholarship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신학 공부와 사역의 길을 계속 힘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CST 공동체와 장학금을 통해 귀한 도움과 관심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저 또한 앞으로 누군가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배움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책임 있게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CST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진: 나종선 신입생〉

샬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DPC(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제4기를 시작하게 된 나종선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서 학교 공동체 여러분께 뉴스레터로 첫인사를 전하며, 제 고백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DPC 과정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배움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역의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는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 모습을 보며 DPC 프로그램이 단순히 상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귀한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귀한 비전을 품으면서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사과정의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문을 구체적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 채워 주신 은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에베소서 3:2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려하고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교육과 상담, 그리고 목회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오신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DPC 과정에서 신학적 성찰과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함께 발전시키며,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공동체 안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귀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 치유와 화해의 사역자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모든 학업과 삶의 여정을 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학업과 재정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배움의 여정을 통해 저를 비롯하여 DPC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교수님과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여정을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클레어몬트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햇살을 비추는 치유의 걸음: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원목실에서



〈사진: 김충진 목사, D.Min.'23〉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동문 여러분, 저는 2023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원목실 부서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충진 원목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자 기독교의료기관인 세브란스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1983년 강남 지역에 문을 열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의료기관입니다. 귀한 지면을 통해 동문 여러분과 임상 목회 현장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배움: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적 연구

저에게 클레어몬트에서의 시간은 목회적 돌봄의 깊이를 더하는 귀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elinquishing Experience in the Pastoral Ordin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s Assistant Ministers Born in the 1980s”라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구조적 아픔 속에서 목사직의 소명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질적 연구로 담아내며, 한 영혼의 고통을 다층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다가가는 CST의 학풍은, 현재 제가 병원이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환우와 의료진의 아픔을 품어내는 단단한 신학적 반석이 되었습니다.

원목실의 이중 사명(The Dual Mandate): 돌봄의 선순환

저는 병원에 근무하기 전, 군종목사로 7년간 복무하며 쌓은 위기 상담 경험과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석사 과정 및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KCPE)의 CPE수련과 수련감독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임용되어 강남세브란스병원 원목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원목실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사명(Dual Mandate)을 품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친 의료진을 치유하는 ‘Care for the Caregivers’ (교직원 목회)입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들의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어야 환자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정기예배를 드리고 교직원들의 기도문 모음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절기마다 다채로운 나눔을 진행하는데, 대림절과 사순절에는 ‘칭찬과 감사 편지 릴레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병원장실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각 부서를 찾아가 간식과 축복기도를 나누는 ‘애락 DAY’를 운영합니다. 또한, 친절 부서나 감동 레터에 선정된 교직원에게는 원목실에서 수제로 제작한 ‘축카스’ 음료를 들고 찾아가 축하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간호사들의 공감 역량 강화 및 간호간병통합병동의 환자 정서적 지지 경험 향상을 위해 원목실 주도로 CPE(임상목회교육) 기반의 ‘공감 경청 교육’ 및 NVC(비폭력대화)교육 등 영적 돌봄의 전문성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Scars into Stars’ (환우/보호자 목회)입니다. 원목실은 매 주일 성찬식이 포함된 예배를 드리며, 병동에 비치된 기도 요청서와 QR 코드를 통해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심방합니다. 특히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려움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수술대기실에서 매일 오전/오후 순환 당직으로 수술 전 기도를 지원하며, 두려움의 공간을 평안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돌보기 위해 상담 및 임상 세례와 임종 전 기도 및 도유 예식 등으로 영원한 안식을 돕고 있으며, 어린이 주일에는 소아·청소년 환우를 위한 작은 음악회와 선물 나눔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맺음말과 비전

저희 원목실은 앞으로도 교직원과 환우 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원목실에서 근무하시는 5명의 목사님들이 모두 CPE 과정 수련 중에 있으며, 나아가 2027년 가을학기에는 강남세브란스 CPE센터가 개소되어 한국 임상목회교육 현장에 귀한 일꾼들을 양성할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환대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베풀 끝에는 선 이들을 향한 깊은 공감의 병실 곳곳에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자의 치열한 사역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시는 클레어몬트 동문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빛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이어가는 배움과 섬김



〈사진: 전병식 교수, D.Min.'20〉

저는 클레어몬트에서 2000년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및 교목으로 부임하여 25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정년퇴직하면서 종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고, 퇴직 직후부터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에서는 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각막이식수술을 지원하고, 신학대학생들에게 매주 한 차례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해외선교사들이 귀국할 때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한 안과 검진 지원 등 다양한 섬김의 사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되어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감사로 섬기고 있으며, 공주에 있는 감리교 영명학원과 이천 양정학원의 개방이사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교육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여러 자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섬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쓰기를 통해서도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쳐 온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감리교회 주간신문인 「기독교타임즈」에 “한국인의 일생의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의례와 통과의례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10~11회 정도의 연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당복지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30년 동안 강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과 모임에서 한국의 유교 장례문화와 기독교 장례문화에 관한 강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서 70세 은퇴 연한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나 학교에서 제가 맡아야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때가 온다면, 정해진 은퇴 시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원하여 은퇴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제가 필요한 곳을 찾아,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따라가는 새로운 걸음



〈사진: 한선종 목사, D.Min.'25〉

저는 CST에서 2025년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선종 목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CST에서의 배움은 제 목회 여정에 신학적 깊이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저는 신학이 강의실 안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과 동료 목회자들과의 만남은 제게 교회를 바라보는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회 현장과 고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현장 선교사였던 제가 한국에서의 목회를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움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저는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하나님의 새로운 목회적 부르심을 따라 금곡감리교회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책임감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CST의 많은 목회자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목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고, 섬겨야 하는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으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서있는 나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새로운 목회 현장에서 삶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2027 기부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

Donor Name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이경식 부총장

월서연합감리교회

LA연합감리교회

T. Y. Suhr 서태원 기념 장학금 (서동영 장로)

기부총액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일 기준)

\$25,100

KEF 잔액(1990.03 - 2026.08):

\$2,611,654

KLS 잔액(2018.10 - 2026.08):

\$888,583

General Fund(2024.03 - 2026.08):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